“땅볼 유도형 투수로 변신중” 김상수의 문학 최적화 작전

〈SK〉

김상수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정든 키움 히어로즈를 SK 와이번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우완투수 김상수(31)는 스프링캠프지인 제주 서귀포 강창학공원야구장에서 새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마친 뒤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수의 이적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팀 불펜 평균자책점(ERA) 최하위(5.94)에 그친 SK 입장에선 반드시 허리를 보강해야 했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김상수는 훌륭한 퍼즐이었다. 결국 키움과 2+1년 최대 15억5000만 원에 FA 계약을 한 그를 현금 3억 원, 2022년 신인드래프트 지명권(2차 4라운드)과 맞바꾸는 사인&트레이드 형태로 영입했다. SK 류선규 단장은 “(김상수가) 불펜의 상수(常數)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김상수는 “순조롭게 잘 준비하고 있다”며 “주장 이재원 등 기존 선수들을 많이 돕고 싶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어 아직 낯설지만, 새로운 팀에서 잘하는 게 내 임무다. 잘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구장에 맞춰 변화하겠다는 의지다. SK의 홈 문학구장은 그가 키움 시절 쓰던 고척스카이돔과 비교해 펜스거리가 짧아 타자들에게 유리한 편이다. 지난 5년간 땅볼(238개)보다 뜬공(305개)으로 더 많은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던 그가 땅볼 유도형 투수로 변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유다. 김상수는 “나는 플라이볼 투수였다. 문학구장은 고척돔과 견줘 펜스거리가 짧아 땅볼 유도형 투수가 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속 140km대 중반의 직구와 커브, 스플리터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상수는 늘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기술보다는 멘탈(정신력)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매년 팔각도와 투구폼에 변화를 주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멘탈 관리와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한 시즌을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데스파이네 입국·알몬테 캠프로 KT 외인 합류, 쿠에바스만 남았다

쿠에바스

KT 위즈가 외국인선수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가고 있다. KT 외국인투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34)는 5일 입국해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팀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부산 기장군 인근 펜션에서 2주를 보낼 예정이다. KT는 입국이 늦은 외국인투수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개인훈련을 할 수 있도록 팀 훈련장과 가까운 곳에 장소를 마련했다. 윌리엄 쿠에바스(31)는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 신청과 맞물린 탓인지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쿠에바스도 입국 즉시 부산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거칠 전망이다.

외국인투수들의 출발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KT는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다. KBO리그 경험이 있는 데다,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봤기 때문이다. 데스파이네와 쿠에바스는 지난해 자가격리 후 본격적인 피칭훈련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KT는 두 외국인투수가 4월초 시즌 개막에 맞춰 준비를 마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타자 조일로 알몬테(32)는 6일 팀 훈련에 합류했다. 3명의 외국인선수 중 가장 먼저 입국해 수원에서 자가격리를 한 그는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몸만들기에 돌입했다. 가볍게 배팅훈련도 소화했다. 알몬테는 지난해 홈런과 타점 1위를 차지하며 페넌트레이스 최우수선수(MVP)에도 오른 멜 로하스 주니어(한신 타이거즈)의 공백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일본프로야구 주니지 드래건스에서 뛰었고, 로하스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히터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최익래 기자의 스프링캠프 리포트 | FA 계약에 ‘우승 옵션’ 포함한 롯데 이대호의 각오

마지막 2년 안에 우승 롯데팬들 기 살려줄것

◀ 사직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롯데 이대호는 2021시즌을 앞두고 2년 최대 26억 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하고 평생 롯데맨을 선언했다. 이 기간 팀의 우승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우승 옵션’까지 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는 “부산하면 롯데라는 이미지를 다시 만들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직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롯데 우승 시키는게 마지막 과업” 이대호 각오에 선수단 우승 결의 “부산하면 롯데 이미지 되찾을 것”

1982년에 태어나 KBO리그와 동갑. 고향이 부산인 까닭에 꼬마 때부터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했다. 자연스럽게 야구를 시작했고, 생애 첫 우승도 1993년 롯데기에서 해냈다. 이대호(39)와 롯데는 운명이었다. ‘예고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는 선수로서 마지막 우승을 롯데에서 이루는, 완벽한 수미상관을 그리고 있다. 선수 이전에 롯데 팬으로서 기죽은 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기에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대호가 던진 화두, 거인의 욕심을 깨우다!

약 15분간 진행된 인터뷰. 이대호는 ‘우승’이란 단어를 수십 번 되뇌었다. 스프링캠프에선 10개 구단 모두 포스트시즌(PS) 진출과 우승을 노래하지만, 유독 남다른 각오다. 지난 시즌 종료 후 다시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그는 2년 최대 26억 원에 도장을 찍었다. 어떤 성적을 내든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유니폼을 벗겠다는 각오다. 아직 롯데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맛보지 못했으니 목표는 단 하나뿐이다. 계약에 스스로 ‘우승 옵션’을 포함시킨 이유다.

외국인투수 댄 스트레일리는 “선수가 먼저 우승 옵션을 제안하는 건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이대호의 의지가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손아섭도 “(이)대호 형이 그렇게 말해주면서 목표가 더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노경은은 “이제 롯데도 우승할 때 됐다. 대호 형이 좋은 타이밍에 선수단에 메시지를 줬다. 아마 더 독하게 팀을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호가 제시한 우승 옵션이 선수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증거다.

아마추어 시절은 물론 입단 후 2군에만 머물 때도 사직구장 관중석을 숱하게 찾으며 응원했던 ‘롯빠’. 이대호는 “1993년 수영초 시절 롯데기에서 우승했다. 어린 시절부터 사직구장을 정말 뻔질나게 찾았다. 매표소 앞에서 2~3시간 기다리며 티켓을 산 것도 여러 번이다. PS 때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바로 앞 5명을 남겨두고 매진된 탓에 발걸음을 돌린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다시 한번 부산하면 롯데”

성공도, 실패도 롯데와 함께였다. 애증의 대상처럼 느낄 법도 하지만 결국은 행복한 기억뿐이다. 이대호는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선수가 될 줄 몰랐다. 투수로 입단했고 타자 전향 직후엔 성적도 나빴다”며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년뿐이다. 어릴 때 꿈이었던 우승을 해보고 물러나야 한다. 부산에서 태어나 야구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나. 우승은 내 마지막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2008베이징올림픽,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최정상에 올랐다. 일본프로야구(NPB)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뛴 2년(2014~2015년)간 일본시리즈 우승컵도 들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소프트뱅크에서 우승한 뒤 맥주 파티를 하는데 ‘롯데에서 우승했다면 후배들과 함께 정말 많이 울었을 텐데’라는 느낌이 들었다. 부산사람들 모이면 야구 얘기밖에 안 한다. 지금 부산팬들은 야구 얘기가 나올 때 조용하실 것이다.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일해도 롯데가 이기면 다음날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었다. 지금은 기죽어있을 롯데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선수로서 타 팀의 한 국시리즈를 지켜만 보는 건 너무도 부끄럽다. 올해는 꼭 마지막까지 야구하고 싶다. 그렇게 ‘부산하면 롯데’라는 이미지를 다시 만들고 싶다.”

사직 | ing17@donga.com

롯데 맨 코디네이터 “2군 영건 육성 돕겠다”

강영식 투수코치와 2군서 투수 육성 美 ‘드라이브라인’ 노하우 전수 기대

만 37세. 적잖은 나이지만 아직 94마일(약 151km)을 뿌리는 왼손투수이기에 유니폼을 벗는 결정이 결코 쉬울 리 없었다. 지난해 KBO리그 입성 직전까지 갔을 만큼 경쟁력도 충분했다. 그러나 브랜든 맨(37)은 퓨처스(2군)리그 투수 코디네이터로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했다. 선수가 아니라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근 김해 상동구장에서 만난 맨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6월 입국해 SK 와이번스와 계약을 시도했지만 메디컬 테스트에서 무산됐다. 이후 대만리그(라쿠텐 몽키스)에서 뛰었다”며 “선수로서 계속 몸을 만들던 중 롯데에서 코디네이터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인 아내를 포함해 가족들과 상의했는데, 야구를 해온 18년간 배운 것들을 어린 선수들과 공유한다는 기대가 컸다”고 밝혔다.

롯데 2군에는 강영식 투수코치가 있다. 기본적인 선수 지도와 마운드 운영은 강 코치의 몫이다. 롯데는 맨 코디네이터에게 드라이브라인의 노하우 전수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 소재 드라이브라인 아카데미는 신체 역학 데이터를 수집해 선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투수의 경우 일반 야구공(150g)과 무게가 다른 웨이티드 볼(110g~3kg)을 활용한 코칭으로 구속을 끌어올린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도 지난 시즌을 앞두고 드라이브라인에서 몸을 만들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롯데가 윤성빈, 이승헌 등 영건 4명을 파견해 KBO리그에도 널리 알려졌다.

브랜든 맨 코디네이터

맨 코디네이터는 5년간 드라이브라인에서 훈련하며 트래킹 장비 활용에 익숙하다. 롯데는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라인에서 활용하는 첨단장비들을 대거 수입해 ‘상동 지부’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맨 코디네이터는 “롯데의 시설이 인상적이었다. 상동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드라이브라인은 미국에서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을 롯데 유망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 2군에는 아직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영건들이 즐비하다. 맨 코디네이터는 “좋은 투수들이 벌써 눈에 띈다”며 “2군 선수들을 1군에 보내고, 또 1군에 간 선수들이 계속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게 내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만난 한국인 아내 덕에 한국문화에 익숙하다. 또 일본, 대만을 합쳐 5년을 뛰었으니 아시아야구에 대한 이해 역시 높다. 첨단장비 활용법은 물론 이를 적용하는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맨 코디네이터와 롯데 2군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최익래 기자

FA 추신수 1루수 전향? “가능성 중 하나일뿐”

빅리그 1314경기 외야수로 소화 “일부 구단 1루수 물어본건 사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구직에 나선 추신수(39)가 1루수로 전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강견 외야수로 메이저리그(ML)에서 활약했던 그에게 1루수 미트는 낯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어디까지나 ‘플랜B’ 정도의 가능성이다.

미국 스포츠 팬 칼럼니스트 사이트인 팬사이디드는 7일(한국시간) “아직 팀을 찾지 못한 추신수가 1루수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활용폭을 넓히기 위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CBS스포츠 등 유력매체가 이를 인용보도하며 현지 팬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06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유니폼을 입고 ML에 데뷔한 추신수는 통산 1652경기에 출장했다. 이 중 지명타자로 나선 경우를 제외한 1314경기 1만1247.2이닝을 모두 외야수로 소화했다. 좌익수(1722이닝), 중견수(1416이닝), 우익수(8109.2이닝) 등 외야에선 얼마든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1루수 미트는 낯설다.

추신수

추신수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송재우 갤럭시아SM 이사는 “일부 구단에서 선수 측에 1루 수비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은 맞다. 어디까지나 가능성 타진이었고, 선수도 다양한 플랜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인 2017년 겨울 즈음 제프 배니스터 당시 감독이 추신수에게 1루수 겸직을 얘기한 적이 있다. 텍사스 소속이었고 감독의 얘기였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건 맞지만 실제 출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타자로서 추신수의 가치는 여전히 ML 팀들도 관심을 보일 만하다. 디애슬레틱은 “추신수는 좌익수 또는 백업 1루수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어울린다. 합리적 금액으로 그를 영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CBS스포츠도 “밀워키 브루어스가 추신수에게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포지션 등 세부적 내용에서 조율만 거친다면 추신수의 새 시즌 유니폼도 머지않아 결정될 분위기다.

최익래 기자